

광주·전남 치매환자 실종, 3년간 연 평균 300건 넘어

지자체, 보호망 강화...배회 감지기 대신 스마트 태그 보급 확대

20만원대 '배회 감지기' 잦은 방전·외출시 미착용 등 문제 2~3만원대 '스마트 태그' 6개월 간 충전없이 신발에 부착

광주·전남지역에서 고령 치매 노인환자의 실종 사고가 매년 300여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의 치매환자가 실종돼 골든타임(24시간)을 넘기면 건강한 상태로 실종자를 찾을 확률이 떨어진다. 지자체에서는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21일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 338건이었던 치매노인 실종신고가 지난해 406건으로 증가했다. 전남에서도 2019년 306건이었던 실종신고가 지난해 272건에 달했다. 실종된 치매 노인이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말 영광군에서 실종됐던 치매 노인 A(여·94)씨는 하루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집을 나서 1km 떨어진 전북 고창군의 농수로 인근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같은 날 고흥군에서도 치매 노인 B(여·81)씨가 실종된 뒤 4일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치매 노인 실종사고를 막기 위해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에서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실종경보 문자 송출 시스템을 갖춰 가족의 동의 하에 실종노인의 인상착의와 신상이 담긴 안전문자를 보내고 있다. 자치단체도 보호망 강화에 나섰다. 우선 치매 환자는 완치가 어려운데다 배회, 충동적 행동 등 증상을 보일 수 있어 환자 관리가 중요하다. 이 점에서 치매 노인에게 인식표와 배회감지기 등을 보급해 왔다. 광주시는 2021년 89개, 2022년 192개의 스마트

배회감지기를 보급했고, 전남도는 2021년 257개, 2022년 203개로 총 460개의 스마트 배회감지기를 배부했다. 하지만 배회감지기가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배회감지기는 대당 20만원을 웃도는 비싼 가격 탓에 대규모로 무상공급이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1회 충전시 2~3일만 사용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고령의 치매환자가 관리하기 힘들어 잦은 배터리 방전과 외출 시 미착용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결국, 지자체와 경찰은 최근 배회감지기를 대체할 '스마트 태그'를 도입하고 있다. 스마트 태그는 위치추적 기능이 있어 치매노인 실종사고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은 배회감

지기와 같지만 가격은 배회감지기의 10분의 1 수준(2~3만원)이다. 별도 충전하지 않아도 6개월 이상 장기사용할 수 있어 치매노인이 별다른 관리를 하지 않고 신발 끈에 부착해두면 돼 효과적이라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스마트 태그는 스마트씽스(smart things) 어플을 통해 등록만 하면 바로 이용 가능하다. 광주시는 지난해 동구에서 먼저 실종치매노인 위험군을 대상으로 52개의 스마트태그 도입을 시작했고, 나머지 지자체도 내년까지 스마트태그를 도입할 방침이다. 전남경찰청은 최근 3년간 실종신고 이력이 있었던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올해 90여대의 스마트태그를 배부할 계획이다. /장윤영 기자 zzang@



농민들이 21일 광주시 북구 금곡마을 무등산 인근 밭에서 무등산 수박(일명 푸랭이)을 수확하고 있다. 무등산 수박은 현재 공동직판장에서 판매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무등산 수박 올해 1200통 출하 '역대 최저'

농가 9곳 출하 시작...집중 호우·폭염에 노지 수박 90% 수확 못해

올해 무등산 수박 출하량이 예상보다 크게 줄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광주시 북구는 21일 "지난 18일 무등산 수박 재배 9개 농가가 출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올해 무등산 수박의 예상 생산량은 당초 1500통이었지만 수확 결과 1200통으로 수정했다. 지

금까지 최저였던 지난 2020년 1700통보다 500통 적다. 무등산 수박 생산량은 2015년 3000통에서 2020년 1700통으로 5년만에 절반 가량 주는 등 하락세다. 재배농가도 1997년 34개 농가였으나 올해 9개

농가로 4분지 3 감소했다. 수박 생산량 감소는 전체 생산량 20%를 노지에서 재배한 것과 연관돼 있다. 자연재해에 취약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광배 무등골 영농법인 대표는 "노지 재배 농가는 7월 집중 호우로 큰 피해를 냈는데 장마가 끝나고 출하를 앞둔 상황에서 폭염까지 겹쳤다"면서 "노지재배 수박의 90%가량은 수확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

"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시민계 심려 끼쳐 유감"

이정선 교육감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21일 "감사관 채용과 관련, 광주시민과 교육 가족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광주 교육의 책임자로서 안타까운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불거진 일들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인사 담당자에 대해서는 징계에 앞서 선제적으로 직무배제를 했다"며 "징계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징계위원회 인력 풀에서 활동하는 변호사와 교수 등 외부 인원으로 징계위원을 구성해 신속하고 투명하게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와 관련, "감사원 징계와 별개로 해당 인사 담당자를 경찰에 고발한 것에 대해 현재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적극 협조해 약간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또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채용 및 선발 등 인사 시스템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보완하고 점검하겠다"며 "지방공무원 인사 평정지침을 포함한 인사 규정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육청은 지난해 9월 개방형 감사관(3급)에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인 전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관리관을 선임해 논란이 일었다. 광주교사노조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며 감사 결과 A 팀장이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면접 시험 점수 변경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A씨에 대해 징계 조치를 요구하고 경찰청에 고발했다. 교육청은 오는 25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팀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장성서 새끼 고양이 사체 무더기 발견

경찰, 동물학대 정황 수사

장성에서 새끼 고양이 6마리 사체가 훼손된 상태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장성경찰에 따르면 장성읍 대창동 도로에서 새끼 고양이 6마리 사체가 무더기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지난 13일 오전 9시20분께 대창동 도로에서 고양이 사체 한 구를 발견하고 치우려다 인근 풀 숲에서 5구의 고양이 사체를 추가로 발견했

다고 한다. 숨진 길고양이 새끼 6마리에서는 사람에게 의한 가해 흔적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마리는 목에 울무 형식의 끈이 묶여 있었고 다른 고양이는 5cm 마다 찢린 흔적이 확인됐다. 경찰은 동물학대 정황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고양이들이 발견된 도로에 있는 방범 CCTV 분석결과 사체 훼손 장면이나 사체를 두고 가는 모습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